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2월 21일(금)

...(음력 1월 24일)...

Пятница

21 февраля 2025 г.

№ 7 (12124)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2월 23일은 조국 수호자의 날이다.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 여러분!

2월 23일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조국 수호자의 날로 기념합니다.

이 명절에는 군사적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향한 깊은 존경심이 스며들어 있고, 우리 국민의 정서와 완전 일치하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러시아 국민은 조국의 자주독립의 위협 앞에서 특별히 단결합니다. 나폴레옹의 침략 당시 민병대의 몽둥이가 무자비하게 침략자들을 절멸시켰고, 대조국전쟁 시절엔 온 나라가 전투부대에 들어가거나 적전에 뛰어들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사할린동포들이 특수군사작전지역에서 적과 전투를 벌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참전자를 돕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가운데 무인기를 개발해 생산하고, 부상자를 돌보며, 위장그물을 만들고, 최전방으로 위문품을 보내며, 국토방위에 필요한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방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군사력에 대한 지원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25년을 러시아에서 '조국수호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이 결정은 국가가 군인들에 대한 헤아릴 수 없는, 또 하나의 감사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 날을 맞아 특수군사작전의 장병들과 대조국전쟁의 참전자들, 후방 노동전선의 참전자들과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복무하시는 장병들, 우리의 군대를 지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과 번영을 기원하며, 국민 여러분, 조국수호자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주지사, 실무차 돌린스크 구역 방문

지난 18일(화)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실무차 돌린스크 구역을 방문했다. 우선 얼마 전에 눈보라로 많은 눈이 쌓인 돌린스크 구역에서 제설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제설작업의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크로브카 마을을 방문하여 얼마 전에 이 곳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자동가스보일러 시설을 시찰했다. 석탄보일러를 대체한 이 가스보일러는 1년 만에 건설되었고, 올 3월에 현지 학교, 유치원과 주민 주택들에 난방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주지사는 돌린스크 구역의 여러 시설들을 돌아보고 저녁에는 돌린스크 주민들과 만남을 가졌다.

주지사와 함께 사할린주 동력부, 문화부, 보건부 등 장관들이 이 만남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질문들에 답변하였다.

한 여성은 현재 의료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초음파 장비와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 지적했다. 이에 블라디미르 쿠즈네초프 보건부 장관은 올 8월에 돌린스크에서 성인과 어린이들을 위한 새 진료소 건설을 시작할 계획인 가운데 이 문제들도 자동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의료 분야 문제를 매일 직접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전문의와 진료 부분, 의약품 무료 제공에 대해 항상 보고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의료장비문제도 점검하고 있다고 하였다.

주민 일부는 가스화에 대한 질문을 하여 동력부 드미트리 쿠와린 장관은 연말까지 돌린스크시 북쪽에 위치한 개인주택들과 도시 남동지역의 가스화가 되고, 2026년에는 소베트스코예 마을에 가스보일러가 운영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또한 만남에서 사회시설 개건과 보수작업에 관한 질문도 많았다. 돌린스크에는 복싱 연습실, 비코브 마을에는 체육관 내부 보수작업을 할 예정이며, 스포츠학교를 위한 버스도 구입하고, 교육부는 돌린스크시 창작회관과 비코브 유치원의 마당들을 정돈하며, 문화부는 마을들의 문화회관들과 비코브 예술학교에 보수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사 기자)

단신

학생 주도로 돌린스크 지역에 특수군사작전 영웅추념비 건립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돌린스크 지역 출장 중 특수군사작전에서 전몰한 참전용사를 위한 기념비 건립 개막식에 참석했다. 기념비는 돌린스크 영웅들의 오솔길에 세워졌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우리는 특수군사작전 중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돌린스크 참전병들을 기리는 기념비를 개막한다. 우리의 장병들은 러시아와 사할린 및 쿠릴열도와 자신의 가족을 위해 목숨을 내주었다. 기념비 건립 추진에 선뜻 나선 청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우리의 장병들이 묻힌 곳 어디든 이러한 기념비를 세워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라고 기념식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기념비 건립은 우글레자위드스크 마을 학생들이 추진했다. 이 기획은 지역 및 지방에 자금을 유치하는 주민참여예산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실행되었다.

사할린 제1부지사, 특수군사작전 참전자들과 만나

2월 18일(화) 사할린주 제1부지사 세르게이 바이다코브가 특수군사작전의 참전병들을 대면 및 화상회의 형식으로 만난 가운데 참전자들에게 주택 제공, 의료지원, 향후 취업 기회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논의했다. 만남은 사할린주 '조국수호'국가재단 지부에서 진행됐다. 세르게이 바이다코브 제1부지사는 특수군사작전에서 돌아온 장병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그들에게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인 만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장에서 돌아온 참전병들에게 우선적인 지원부문은 바로 사회적응 및 활동이다. 만남에서 많은 참전병들이 향후 취업을 위해 교육과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의 기회에 관심을 가졌다.

일린스코예 마을, 다기능 우체국 개소

토마리 지역 일린스코예 마을에 새로운 우체국이 개설된 가운데 우체국의 새로운 건물에는 자동난방이 가동되고, 에어컨, 화재정보 시스템도 설치되었다. 출입구는 지붕과 현관이 있어 이러한 조립식 건축 및 전체 설비구축에 6개월이 걸렸다.

기술적, 다기능적 설비에 따른 새로운 우체국은 다른 우체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이제 이곳에서 주택관리비 납부, 소포 발송 및 수신 등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할린주에서는 '디지털 경제'국가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의 마을에 우체국의 현대화를 위한 대규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사할린주는 3년간 14개의 우체국들을 개건했으며, 향후 3개 마을들에 우체국을 건설할 예정이다.

새고려신문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15,49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편집부)

2월 23일은 조국 수호자의 날

국민으로서 조국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구 위탈리 상병

이번 기사 주인공을 특수군사작전 참전자로 정하고 인터뷰할 대상을 찾기가 어려웠던 중에 드디어 친척의 추천으로 한 분과 연락이 닿았다.

구 위탈리(1987년생) 참전병을 찾았다. 그는 특수군사작전지 근처에 있는 한 군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그는 간단히 자신을 소개하는(나이, 교육, 노동활동 등) 문자를 보냈다.

구 위탈리는 우글레고르스크 지역의 사흐초르스크시에서 태어났고 8살에 부모를 따라 흠스크로 이사해서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았다.

9학년을 마친 후 흠스크직업학교에서 선박 내화 운전을 전공하고, 2006년에 직업학교 졸업 후 군대에 입대하여 2년간 복무하였다. 군대에서 돌아온 후 흠스크 내무국에서 보안 부서에서 근무했는데 이 부서는 중요한 정권 대상을 비롯해 개인 및 법인의 계약에 따른 재산, 공공 질서 보호 등을 취급하는 부서다. 5년간 근무한 후 내무국을 그만두고 일반 선원으로서 일을 시작했고 일하면서 동시에 극동국립어업기술대학교(블라디보스토크)에서 기계기술을 전공했다. 선박에서 전공을 따라 기계 기술자로서 활발하게 일을 했다.

2022년 9월에 동원되어 특수군사작전에 참전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얼마 전에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보낸

적이 있어 유치원에서는 특수군사작전 지역에 있는 가족, 친척 관련 전시를 준비했었다고 한다.

구 위탈리는 두 차례 결혼했는데 모두 러시아인이었고, 아내들은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성들이었다. 첫 아내에게는 3세의 딸이 있었는데 위탈리는 그 아이를 딸 처럼 키웠다. 그리고 첫 아내와는 두 딸을 두었다. 2017년에 이혼을 했지만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한다. 둘째 아내 스웨틀라나와는 특수군사작전에서 첫 휴가를 받았을 때 2023년 늦은 가을에 결혼을 공식적으로 등록했다. 스웨틀라나와는 알고 지낸 지 9년이지만 사귀기까지는 아직 3년이 채 안되었다고 한다. 스웨틀라나에게는 이미 딸과 아들이 있었고 현재는 임신 중이다. 부부는 올 5월에 딸을 기다리고 있다.

위탈리는 친딸들이나, 배다른 자녀들이나 모두를 친자녀처럼 여기고 사랑한다고 한다. 그가 품고 있는 사진첩에는 자녀들의 사진이 가득하고, 애정과 따뜻함이 가득한 사진들이다.

“자신의 아이가 있는 여자와 결혼하면 그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여겨야 하고, 자기 아이 만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위탈리가 전했다.

아내 스웨틀라나에 따르면 위탈리는 원래 사람을 좋아하고, 친구도 많다고 했다.

“좋은 가장이고, 사교적이며, 세

심하고, 배려가 많은 사람이예요. 친척도 많아요. 사할린에도 많고 현재 한국에서 사는 사람도 많아요.”라고 스웨틀라나가 전했다.

위탈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족과 연락을 한다.

특수군사작전에서 위탈리는 두 번의 휴가를 받았다. 처음엔 모집 1년 2개월이 지난 후, 두 번째는 2024년 5월에 2주 휴가를 받았다. 2024년 6월에 부상을 입었다. 어깨와 다리를 다쳐서 노워로시이스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완치를 위한 휴가를 받았다.

사할린에 와서는 부상 후유증이 심해졌고, 다리와 어깨에 남아있는 파편 제거 수술을 여러 번 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의 다양한 치료가 많아 6개월이 지나서야 다시 특수군사작전장으로 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군병원에 입원했다.

위탈리는 정찰대 상병이다. 아주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단히 위험한 조건 속에서도 부상을 당한 군인들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가 받은 첫 메달은 ‘죽어가는 사람 구조’ 메달이다. 특수군사작전 전장에서 1년 반이 되었을 때 그는 ‘주코브’ 메달을 받았다. ‘주코브’ 메달은 조국과 러시아 연방의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투 작전에서 보여준 용맹, 헌신, 개

인적 용기에 군인에게 수여되는 포상이다.

“죽음이나 부상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나요?”란 필자의 질문에 그는 “물론 무섭죠. 어리석은 자가 겁내지 않죠.”라며 “이곳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친형제처럼 우정이 생긴 전우들이 목숨을 잃을 때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위탈리가 소속된 정찰소대의 그룹에는 5명이 움직였는데 이 5명 중에서 현재 2명만 살아남았다고 한다. 맨 처음엔 이 전우들이 목숨 잃은 사실을 직접 가족에게 전하기로 약속했다. 물론 지도부에서 이걸 알리지만 영상통화로 그들의 가족(어머니, 아버지, 아내...)의 눈을 보면서 이 비보를 전하는게 가장 두렵고, 꺼려지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현재 어려운 시기에 위탈리는 국민들의, 특히 사할린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항상 느끼며, 반갑게 받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는 항상 소포와 여러 장비들을 잘 받고 있고, 개별적으로도 많은 편지와 소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학생들의 지지편지들에서 많은 따뜻함이 느껴져 마음이 위로를 얻습니다.”라고 말했다.

한인으로서 한식을 좋아하는 그는 물론 전투장에서 한식을 먹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위탈리의 어머니와 누나의 소포를 기다리고 있다며,



얼마 전에는 사할린에서 한인단체가 보내준 김치를 먹을 수 있었다고 했다. 가끔 라면도 먹는다고 한다. 그리고 도네츠크에서 우연히 한국식품을 파는 가게를 발견해 반가웠다고 했다. 물론 휴가 때는 밤과 김치는 그에게는 필수 음식이었다. 특히 아내가 해준 김치볶음을 아주 좋아한다고 했다.

그의 소원은 모든 러시아 국민들의 소원과 같다. 특수군사작전이 끝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저는 가족과 주위 사람들이 항상 건강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안 겪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바람이고,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보다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어요.”라고 위탈리가 말했다.

(배순신 기자) (사진 구 위탈리 제공)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 <사할린의 야간비행> 개최

2월 15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의 야간비행> 전국 스키점프 경기가 열린 가운데 극동에서 가장 강력한 스키점프대 K-70이 행사장이 되어 이곳으로 국내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모였다. 중에는 러시아 남녀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팀 선수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사할린 선수들에게는 경쟁자가 되었다.

경기 시작을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열며 “우리 지역은 매해 갈수록 대규모 행사 개최를 위한 중요한 행사장이 되고 있다. 불과 한 달 전에 러.중 청소년 동계스포츠대회를 개최했고, 이제 우리는 극동지역에서 스포츠 중심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올해는 45개의 국제적, 전 러시아적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이며, 2027년에는 이미 60개의 다양한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 지역으로 세계 및 유럽 챔피언 선수들과 국내 전 지역의 스포츠 선수들이 찾아왔다. 사할린에 여러분을 모실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라며 인사를 전했다.

이번 스키점프 경기에 러시아의 다양한 지역들에서 26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그중에 2022년 동계올림픽의 은메달리스트인 다닐 사드레예브와 러시아컵 다관왕이자 세계적 경기의 참가자인 크리스티나 프로코피예와도 포함돼 있다.

사할린 지역에서는 2024년 러시아 선수권대회 2관왕을 포함해 사할린의 노련한 스키점프 선수들인 알렉산드르 바제노브, 막심 콜로보브, 니키타 로보다, 제니스 공이 대표선수로 출전했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 장인들이 화려한 스키점프를 선보였는데 바로 그는 전 러시아컵 단계 다관왕인 미하일 부르토프와 국내 선수권대회 다관왕이며, 2018년 세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우승한 로만 트로피코브이다.

“Сахалинские ночные полеты” прош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15 феврал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ли всерос-

сийски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прыжкам на лыжах с трамплина “Сахалинские ночные полеты”. Местом проведения стал самый мощный трамплин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K-70, куда прибыли сильнейшие спортсмены страны. В их числе — летающие лыжники мужской и женской сборных команд России. Они и составили конкуренцию сахалинцам.

Старт соревнованиям д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Наш регион с каждым годом становится все более значим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круп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сего месяц назад у нас проходили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е молодежные зимние игры (16+). Мы становимся столицей спорт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этом году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45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 всероссий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а в 27-м — уже 60. К нам приехали почетные гости — чемпионы мира и Европы, спортсмены со всей страны. Для нас большая честь принимать всех вас на сахалинской земле, — обратился к гостям мероприятия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его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26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разных городов России. Среди них — серебряный призер зим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2022 года Данил Садреев и многократная победительница этапов Кубка России, участница этапов Кубка мира Кристина Прокопьева.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редставили опытные сахалинские летающие лыжники, в том числе двукратные чемпионы России 2024 года — Александр Баженов, Максим Колобов, Никита Лобода и Денис Гон. Кроме того, зрелищные прыжк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мастера спорт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ласса — многократный победитель этапов Кубка России Михаил Пуртов и многократный чемпион страны, победитель Всемирной зимней Универсиады-2018 Роман Трофимов.

사할린 주민, 2025년 초부터 재활용품 185톤 수거

사할린주의 주민들이 유리, 플라스틱, 종이 등 재활용품 185톤을 모았다.

특히 이에 유즈노사할린스크와 포로나이스크, 돌린스크의 주민들이 적극 참여했다.

재활용품 수집은 러시아 대통령이 추진하는 <환경보호적 번영> 국가기획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폐기물 관리국’이 전했다.

사할린주 주택공공사업부의 나탈리아 쿠프리나 장관은 “쓰레기 분리수거는 사할린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주내 재활용품 수거량은 점차 증가하여 긍정적인 추세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역에서는 1월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지식 향상과 쓰레기 분리수거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재개했다. 지역 관리부 직원들은 학생들에게 쓰레기의 분리수거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들의 분리수거활동이 유익한 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지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별도로 모은 폐기물은 쓰레기 수거장의 파란 철그물망통에 버려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쓰레기 수거는 구역에서 최소한 일주일에 1회 수거하고, 도시 중심지에서는 일주일에 2회-3회 수거를 하며, 이후 수거된 것은 분리작업을 위해 보낸다. 분리돼 모아진 재활용품은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하바롭스크, 우수이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노워시비르스크의 가공공장들로 보낸다.

Жители Сахалина собрали 185 тонн вторсырья с начала 2025 года

В январе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брали 185 тонн стекла, пластика и бумаги. Особенно активно в этом участвовали жите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ронайска и Долинска. Сбор вторсырья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Экологическое благополучие», который был инициирован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О «Управление по обращению с отходами».

«Сортировка отходов становится важной частью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островитян. Объем собранного вторсырья в области постепенно увеличивается, что является положительной тенденцией.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она продолжится»,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Кроме того, в январе в регионе возобновил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направленную на повышение экологической грамотности и популяризацию раздельного сбора отходов. Сотрудник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ператора обучают детей не только сортировке, но и тому, как наши действия могу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производству полезных материалов.

(8면에 계속)

리마렌코 주지사, 사할린주에서 특수군사작전 참전자들을 위한 인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언급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지난 14일(금) 있는 사할린의 주요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2025년 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부문 중 하나는 특수군사작전 참전병들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 및 적응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올해 시작되는 <사할린과 쿠릴의 영웅> 지역 프로그램이 이 문제를 도울 것이라며 "우리의 승리한 장병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가슴에 훈장을 가득 달고, 새로이 획득한 역량과 사람을 관리하는 경험을 가진 영웅으로서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돌아온 장병들이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나아가 그들은 정부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특수군사작전이 아직 진행되고 있어도 현재 우리는 이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군사작전 참전병사들을 위한 <사할린과 쿠릴의 영웅>지역 프로그램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개발되었으며, <영웅들의 시간> 연방 프로그램의 연속이다. 지역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신청 모집은 2월 말에 시작되고, 교육프로그램은 사할린국립대학과 지역 관리기관 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된다. 현재 최전선에 있는 장병들도 선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후 프로그램 참여가 시작된다. 사할린주 정부의 직원들이 교육을 위한 강사로 나서고, 프로그램 참여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참

가자는 지방 행정부와 주 정부기관의 인재요원에 포함되며, '군인', '야방가르드', '윤아르미아(소년군관학교)' 애국 분야의 단체에 소속된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주 교육체계에 <군사적 업무>시범기획 도입에 중점을 두고, 그 일환으로 교육활동에 전역한 장병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특수군사작전의 참전용사들은 사할린 지역 8개의 학교에서 군사적 업무를 가르치고 있다. 올해는 군사작전에 참가 경험이 있는 장병들을 사할린의 약 50개의 학교의 강사로 유지할 계획이다.

사할린주는 행정직에 군사작전 참전용사들을 채용하고 있다. <영웅들의 시간> 국가 프로그램의 참가자 중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지도했던 세르게이 쥐갈킨은 사할린주 디지털기술 개발부의 차관이 되어 무인기와 해양시스템 개발에 종사하고 있고,

사할린 주민인 루슬란 시트지코브는 특수군사작전 지역에서 돌아와 1년 넘게 <야방가르드> 교육-방법론센터를 지도하고 있다. 특수군사작전에서 전역한 올리안 크라사윈도 이 센터에서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한편 리마렌코 주지사가 1주일전에 발표한 <사할린과 쿠릴의 영웅들>인재프로그램은 2월 20일(목)부터 시행단계에 들어갔다.

(본사 기자)

내, 고국 돌아온 사할린 동포 148가구에 임대주택 지원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한국에 입국한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 148가구에 임대 주택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LH는 지난 6~7일 인천, 부산, 경남 양산 등 전국 LH 주거복지 지사에서 113가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35가구에 대해서도 입주 시기 조정, 통역 지원 등을 통해 조기에 계약 체결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 238명의 사할린 동포가 주거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최고령 계약자 이순귀(101) 씨는 "죽기 전 고국 땅을 밟게 해주고 또 이렇게 좋은 집도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라면서 "앞으로 고국



LH, 고국 돌아온 사할린 동포 148가구에 임대주택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에 잘 정착해 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LH의 임대 주택 지원을 받은 사할린 동포는 총 2천290가구에 이른다.

정월대보름 맞이 사할린 동포 · 영월군 상생한마당 개최인쇄하기

영월산업진흥원(원장 엄광열)과 영월군기업경영인협회(회장 박왕기)가 11일 경기도 안산시 고향마을 복지관에서 흥겨운 정월대보름 맞이 러시아 사할린동포·영월군 상생한마당을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경기 킨텍스에서 열린 영월군 취업박람회 업무협약을 통해 마련된 한마당에는 최명서 군수와 김광호 재경영월군민회회장·진옥선 재안산영월군민회회장·신동욱 재안산강원특별자치도민회회장 등과 유선준 러시아 사할린 동포협회장과 동포 100여명이 참석했다.이들은 만둣국과 술떡·부침개·김치류·강냉이 빵티기 등 전통 세시음식을 함께 나누며 모처럼 즐거운 웃음꽃을 피웠다.또 최 군수는 교육발전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앞으로 고려인 후손 세대들의 농촌유학 연계를 강화하고 사할린 동포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 최명서 영월군수가 정월대보름 맞이 러시아 사할린 동포·영월군 상생한마당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진행했다.최 군수는 "정월대보름을 맞이 러시아 사할린 동포와 함께 화합과 교류의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향후에도 재경영월군민회를 비롯한 지역 유관단체 등과 함께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사할린주, 배구 종목 적극 개발될 전망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전 러시아 배구연맹 회장인 안드레이 고르벤코가 사할린 지역에서 배구 종목의 발전과 대중화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서에는 배구 활동에 주민들의 참여와 경기, 다양한 활동교실의 진행을 비롯해 지역에 스포츠적 기반시설 개선을 규정하고 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우리는 사할린 지역에 스포츠의 발전과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들 가운데 건강한 생활방식의 대중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배구는 사할린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 중 하나이며, 사할린 주민 8,500명 이상이 배구를 즐기고 있다. 지역 스포츠학교의 학생들은 전 연령대별로 극동지역에서 선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이 스포츠 종목을 더욱 발전시켜 아마추어든, 전문가 수준이든 배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수를 더욱 늘리고, 새로운 배구 체육관을 건설하며, 전 러시아적, 국제적 수준의 경기를 진행하여 우리 배구선수들이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현재 사할린 지역은 정통 배구, 해변배구(비치발리볼), 설상배구(스노발리볼) 활동을 위한 모든 조건이 잘 갖춰진 러시아의 몇 안되는 지역 중 한 곳이라고 한다. 맞춤형 스포츠로서 좌식배구에는 특히 특수군사작전에서 장애를 가지게 된 참전병들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전 러시아 배구연맹과의 협력은 사할린 지역에서 배구 종목의 대중화와 지역 배구선수들의 실력향상 촉진을 의미한다. 배구와 건강한 생활방식에 특히 청년들을 비롯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경험과 지식을 교환하고, 스포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며, 체육 및 스포츠를 발전을 위한 국가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드레이 고르벤코 회장은 "체결된 협정은 전반적으로 사할린주만 아니라 러시아 및 다른 지역들에서 배구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사할린에는 최상급 A 리그 경기를 하는 대단히 우수한 여자배구팀이 있다. 이 팀은 슈퍼리그에 출전하기도 했다. 곧 슈퍼리그로 돌아

와 출전하길 기대한다. 또한 사할린 지역에서는 비치발리볼과 스노발리볼이 양호하게 발전되고 있는데 바라기는 이들 종목에 따라 매해 경기를 이곳에서 개최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앞으로 좌식배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주에는 패럴림픽위원회와 만남이 조성돼 우리의 공동협력으로 특히 특수군사작전 참전자들로 구성된 지역팀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사할린 지역에서 유청소년 배구가 특히 인기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 가운데 8세-17세 연령의 학생들 852명이 스포츠 훈련을 받고 있으며, 이들을 31명의 훈련강사가 지도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처음 2007년생-2008년생으로 구성된 사할린 여자배구 선발팀이 국제 배구대회 <로코볼레이>의 결승전까지 진출했다.

사할린의 스포츠학교 배구 종목의 학생 2명은 국가 청소년대표팀 후보 명단에 포함됐다.

러시아 선수권대회 단계에 배구팀이 출전한 덕에 246명의 사할린 배구선수들은 스포츠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26명은 스포츠 장인에 올라있고, 44명은 1등급 보유자이다.

국가 프로그램인 <체육과 스포츠 발전>의 일환으로 지역 정부와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지원해 스포츠 행사를 비롯한 활동교실, 아동을 위한 교육세미나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사할린에서는 2년 연속 스노발리볼과 비치발리볼 종목 러시아컵 단계의 경기가 개최되고 있으며, 배구 최상급 A 리그 팀들 사이에서 여자배구팀들의 경기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주정부 자료에서)

고려인무역협회 ·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 지원 맞손

고려인무역협회(KTI)와 벤처기업협회가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나선다. 두 기관은 지난 16일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벤처·스타트업 대상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정보 제공과 홍보,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정보 공유, 공동 협력 사업 기획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국내 기업이 CIS(독립국가연합)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고려인무역협회는 서울 중구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창립 기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협회는 사할린 동포 3세인 인 세르게이(한국 이름 인병혁) 회장이 이끌고 있다. 앞으로 국내 거주 고려인을 위한 일자리 매칭 사업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인 회장은 작년 말까지 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총장(왼쪽)과 고려인무역협회 인세르게이 회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스탄 등의 고려인 모임인 고려인비즈니스클럽 연합회(UKBC) 회장을 맡기도 했다. 인 회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고려인이 러시아 재건 사업 통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Новости диаспоры

Избраны заместители председателя АСК

В субботу, 15 февраля,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правления НКО «Ассоц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СК) в полном составе.

На заседании путем открыт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заместителями председателя АСК были избраны Ю Е Ни и Квон Сан Те.

Были также утверждены члены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Совета, рекомендованные регионами. Консультативный Совет являе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ьным органом НКО АСК.

Обсуждались также различные текущие вопросы, в том числе были рассмотрены новые заявления граждан о принятии в члены АСК.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заседание прошло в новом помещении АСК, в котором организация собирается проводить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АСК)

Программа поддержки здоровья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прошла в Корсакове

15 февраля в Корсакове прошла программа «Поддержки здоровья»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1-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1948 г.р.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комплекс занятий по профилактике болезни Альцгеймера, ЛФК. Пожилые люди прошли общий осмотр врача-терапевта, необходимые физиопроцедуры.

Участники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размялись и повеселились, приняв участие в играх и упражнениях с мячом. После чего их ждал вкусно накрытый стол,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канал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Программа «Поддержки здоровья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РМ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фонд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К и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К.

Объявлен старт кадровой программы «Геро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В четверг, 20 февраля,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ъявил о начале приема заявок на участие в региональной кадровой программе для бойцов СВО «Геро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Ее участниками смогут стать как демобилизованные бойцы, так и действующ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управленческие позиции они смогут независимо от воинской должности и звания.

В день старта заявочной кампании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по вопросам реализации значимого кадрового проекта для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 Наступило время героев. В преддверии Дня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мы запускаем программу «Геро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Она является логическим продолж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Время героев», который уже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Мирная жизнь на пороге, и регион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 это забота о наших воинах, которые уже пришли или придут с СВО. Это люди, которые приобрели сильные компетенции в боевых условиях. Наша задача, чтобы они адаптировались в новой реальности: получил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 участвовали в жизни наших городов и сел. В этом году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мы отберем не менее 30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попадут в резерв и в перспективе начнут работать в органах региональной и муниципальной власти, в бюджет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бизнесе, силовых структурах и патриотиче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ях. Важно, что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смогут и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которые сейчас находятся в зоне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Для них предусмотрены резервные места, пройти обучение бойцы смогут после возвращения домой, - рас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кадровой программы станет отбор претендентов на обучение основа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ройти переподготовку по данному курсу смогут участники с высшим образованием.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них станет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 Школа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ом. Обучение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очно-заочной форме.

— Обучение включает 520 академических

часов. Это мощная, высокоуровневая программа, напоминает программу для высшего управленческого состава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Ф. У каждого участника будет персональный наставник из числа руководителей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 практические стажировки на местах. При этом мы организуем постсопровождение – в течение полугода будем работать с каждым из слушателей, корректировать и дополнять его карьерный план, пока претендент не трудоустроится,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Александр Самардак.

Второе направление кадровой программы - подготовка из числа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операци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для курса «Военное дело».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тся в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ах с января 2025 года. Он внедрен по инициативе главы региона и поддержан Министерством просвещения РФ и российским движением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Движение первых». Сейчас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й факультатив преподается в восьми школах области. Перед регионом стоит задача переподготовить на баз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росвещения 150 педагогов с реальным боевым опытом.

Подать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могут и бойцы со средним специальным образованием. К и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адаптации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му сопровождению будет привлечено Агентство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Все герои, которые подадут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будут замечены. Мы намерены позаботиться о каждом защитнике, буквально за руку вести его по карьерной лестнице, помогать достичь успеха в мирной жизни,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кадровую программу «Геро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началось 20 февраля на сайте <https://geroi65.pf>. Старт обучения назначен на 23 июн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Контакты для связи по вопросам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телефон: 8 (4242) 557410 Email: Geroi65@sakhalin.gov.ru

(Пресс-центр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3 февраля - День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Уважаемые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23 февраля мы вместе со всей страной отмечаем День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Этот праздник пронизан глубоким уважением к людям ратного труда. Он полностью соответствует характеру нашего народа.

Нам, гражданам России, свойственно объединяться перед лицом угрозы независимости Родины. Так было во времена наполеоновского нашествия, когда дубина народной войны без пощады крушила иноземцев.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ся страна встала в строй или к станку и добилась Победы.

И сегодня одни наши земляки сражаются с врагом в зоне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Другие – всячески помогают воинам. Разрабатывают и производят беспилотные летательные аппараты, выхаживают раненых, плетут маскировочные сети и собирают

посылки на фронт, перечисляют деньги на нужды обороны. Главное – никто не остался в стороне. Такая поддержка наш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наблюдается повсеместно.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бъявил 2025 год в России Годом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Это решение - еще один знак безмерной благодарности страны своим воинам.

Поздравляю бойцов в зоне СВО, ветерано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тружеников тыла, военных, несущих службу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сех, кто оказывает поддержку нашим Вооруженным Силам!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вам, счастья и благополучия!

С праздником! С Днем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земляки!

В.И. Лимаренко,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КРК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форуме по вопросам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в Инчхоне

10 февраля 2025 года состоялся форум «Понимание и пути гармоничного сосуществования с зарубежными корейцами»,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Национальным Инчхонски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Мероприятие собрало более 150 участников, включая главу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Ли Сандока, руководителя Центр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зарубежными корейцами Ким Ёнгын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академических кругов и лидеров организаций.

Выступая с приветственной речью, Ли Сандок отметил, что с росто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ских сообществ возника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оздания нов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и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направлений, а также развития бизнес-проектов, способствующих их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с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ой. Он выразил благодарность Инчхонскому университету за внимание к вопрос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и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взаимовыг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ключевым докладом выступил Ким Ёнхиль,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Донпхо сэге синмун» (동포세계신문), который призвал обьять текущий год годом перемен в отношении к зарубежным корейцам, поскольку он совпадает с 80-летием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н предложил использовать историю борьбы корейце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для создани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и проведения мероприятий, таких как празднование Дня всемирного корейца в регионах с высокой концентрацией корейцев из-за рубеж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ев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АКРК) — Тен Жанна, Но Александр, Дигаи Максим и Акуленко Вадим —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форуме и в свободной дискуссии ещё раз привлекли внимание к скорейшей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объединения виз Н2 и F4 дл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а также расширения стипендиальных программ для студенто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е.

Участие и выступление АКРК в форумах способствует дальнейшему продвижению интересов кореев и укреплению их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корейским обществом.

(Телеграм-канал АКРК)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подготовило изменения в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об этн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ях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России (ФАДН) подготовило проект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ях» от 12 января 1996 года N 7-ФЗ.

Законопроектом предлагается ввести новую категорию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а именно –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е. В эту категорию попадут все некоммер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в том числе уже действующие, которые создаются по этническому или межэтническому принципу.

Законопроект не позволяет иностранцам создавать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и руководить уже действующими.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ранее ограничение иностран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заменено в новом тексте законопроекта

безоговорочным запретом.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также не смогут действовать в сфере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ввести специальный «маркер» - слова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й» должны будут обязательно указываться в наименовании этнокультурных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и этом таким организациям нельзя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именова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в своих названиях.

Если в течение двух лет этнокультур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не приведут свои уставы в соответствие с новыми правилами, то их принудительно ликвидируют.

<https://t.me/saramkor>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уд приступил к рассмотрению уголовного дела Юн Сок Ёля

20 февраля Центральный окружной суд Сеула приступил к рассмотрению уголовного дела Юн Сок Ёля, временно отстранённого от долж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решение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Суд проводит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слушание для выяснения основ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дела и планирования будущих судебных заседаний. Присутствие ответчика в таких случаях не является обязательным, но суд одновременно рассматривает ходатайство Юн Сок Ёля об отмене его ареста. При рассмотрении таких вопросов присутствие подателя ходатайства необходимо.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дня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проведёт десятое слушание по делу об импичменте Юн Сок Ёлю. На заседание приглашены в качестве свидетелей по делу бывший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Хан Док Су, бывший замдиректора национальной службы разведки Хон Чжан Вон и бывший начальник полицей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К Чо Чжи Хо.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данное заседание станет заключительным, и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вынесет решение в середине марта.

Лидер КНДР впервые за 4 года посетил мавзолеев своего отца

16 февраля, в день рождения своего отца, бывшего лидера страны Ким Чен Ира, нынешний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 посетил Кымсусанский дворец Солнца. Это было его первое за четыре года посещение семейной усыпальницы в годовщину рождения покойного лидера.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Ким Чен Ына сопровождал заместитель заведующего отделом пропаганды и агитац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Ким Ё Чжон, секретари ЦК и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Но Гван Чхоль. К статуям Ким Чен Ира и основателя КНДР Ким Ир Сена была возложена корзина цветов. С 2012 года Ким Чн Ын регулярно посещал Кымсусанский дворец Солнца в дни рождения покойных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лидеров, но в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таких визитов не было.

В Сеуле обсудили поддержку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11 февраля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Чо Тхэ Ёля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комитета по вопросам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Его участники рассмотрели и приняли план поддержк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а текущий год. Чо Тхэ Ёль отметил рост беспокойства сред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ША в связи с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ой, провозглашён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Он подчеркнул намер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сделать всё возможное для защиты прав и интересо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проживающих в США, а также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том числе, путём оперативног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им консульской помощи. В рамках утверждённого пла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одолжит работу над укреплением связей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 их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ой, - отметил Чо Тхэ Ёль.

Сеульская премия мира присуждена организации Direct Relief

17-я Сеульская премия мира присуждена американской гуманитар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Direct Relief. Как отметили 18 февраля в Фонде премии, да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лет воплощает высокий гуманистический дух, содействуя благополучию человечества, сокращению неравенства в доступе к медицинским услугам и защите человеческого достоинства. Гуманитар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Direct Relief, основанная в 1948 году, действует на основе убеждения, что «каждый человек, независимо от окружающих условий, имеет право на качествен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С 2000 года она оказала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на сумму более 16 млрд долларов и выделила более 350 млн долларов в виде грантов 136 странам мира. Сеульская премия мира –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града, учреждённая в 1990 го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К. Она присуждается раз в два года в знак признания духа мира, проявленного во время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1988 года в Сеуле.

Загрузка DeepSeek в РК временно приостановлена

В связи с опасностью утечки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загрузка китайской генеративной системы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DeepSeek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К временно приостановлена. Как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миссии, доступ к системам загрузки заблокирован с 18 часов 15 февраля. Его возобновление возможно лишь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 программу будут внесены «улучшения и исправл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ами РК о защите персона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Кроме того, выявлены признаки возможной передачи пользовательских данных из DeepSeek сервису ByteDance, материнской компании китайской платформы TikTok. Комиссия отметила, чт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РК в области защиты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процесс внесения изменений в сервис DeepSeek может потребовать значительного времени.

RKI

Пхеньян открыт для зарубежных туристов

Пекин, 16 февраля – ИА РУСКОР. Представители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агентств впервые с 2020 года, когд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акрыла свои границы для туристов из-за COVID-19, въехали в страну, чтобы осмотреть новы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объекты на фоне признаков того, что Пхеньян вновь открывается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Сотрудники Koryo Tours въехал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ый приграничный город Расон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 рамках «специальной поездки только для сотрудников», поскольку страна еще не полностью открыта для туризма, согласно информации на сайте британского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в Пекине. Целью поездки было «обсудить с нашими партнерами, а также посетить новы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объекты и узнать о ключевых событиях в сфере туризма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или недели мы сможем на 100 процентов подтвердить открытие Расона для туристов», — также

отметила компания. Эта новость появилась после того, как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а признаки возобновления туризма для большего числа иностранцев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 нача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на возобновила его для россиян. Koryo Tours и Young Pioneer Tours, еще одна туристическая компания, специализирующаяся на поездках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которая, как сообщается,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к последней поездке в Расон,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объявила,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ткроет сво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рынок для китайцев и всех осталь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тей,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американцев и южнокорейцев.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Koryo Tours принимает заявки на туристические программы в Расон в марте и апреле.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 открыть в июне новую туристическую зону «Кальма» на восточном побережье, рассчитывая привлечь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в качестве способа заработка иностранной валюты в условиях санкций ООН.

Ко дню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работника

Россиян встречают с улыбками. Посол РФ в КНДР рассказал, как живет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6)

В Пхеньяне хорошо развита сеть ресторанов, где можно отведать как шедевры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так и экзотические для этого города блюда. Есть заведения, куда можно попасть только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писи - так много желающих. Например, "Самсонам" на улице "Ученых будущего" - там делают потрясающий шашлык на кедровых углях.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новый ресторан на недавно отстроенной улице Хвасон - "Хвасон-кори Мэччучи" - мы его по-своему назвали "Хвасонштрассе Бирштуббе" (мы, посольские, здесь вообще все переименовываем на свой лад). Там весь интерьер и наряд официантов, а также еда - все сделано в немецком стиле. Подают баварские колбаски нескольких видов, квашеную капусту, рогалики и даже настоящую печеную свиную голяшку - все абсолютно аутентичное. А самое главное - вкуснейшее пиво марки "Тэдонган" - оно по качеству не уступит лучшим немецким сортам.

Как развивается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гуманитарной сфере, культуре, образовании? Можно ли ожидать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активизацию гуманитар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и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Интерес у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к получению образования в России огромен. Уверен, что граждан КНДР у нас будет учиться по разным специальностям все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Только что из поездки в Россию вернулись ректоры главных корейски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 имени Ким Ир Сена и технического - имени Ким Чака. Достигнуты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 целым рядом московских вузов, включая Университет им. Ломоносова, а также с университетами Казани, Новосибирска и Владивостока об обмене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и студентами.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у нас здесь находился с визитом министр спорта М. В. Дегтярев, который подписал протокол спортивных обменов на 2025 год. Намечено проведение значительного числа двусторонних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 футболу, хоккею, волейболу и другим видам спорта, корей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практически во все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турнирах, которые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в нашей стране. Российск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легкоатлеты и любител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Апрельском Пхеньянском марафоне, который, наконец, возобновляется после длительного перерыва. Корейские организаторы надеются, что сюда в апреле придет рекордное число наших зрителей, которые захотят посмотреть на марафон с трибун и заод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орейской столицей.

Планируются гастроли в Пхеньяне нескольки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в том числ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убанского казачьего ансамбля "Криница". Туристов, помимо уже известных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ей, будут ждать новые замечательные объекты, среди которых центр морского отдыха Кальма, который будет введен в строй в июне сего года. Я очень рекомендую всем, кто читает эти строки, посетить КНДР. Это необыкновенно красивая, самобытная страна. Вы,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получите огромное удовольствие от ее природы, гор, моря, от общения с этими потрясающими людьми - нашими искренними и преданными друзьями.

В России у большинства граждан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КНДР довольно ограничены. На ваш взгляд, какие места в КНДР наиболее интересны с точки зрения истории, культуры и природы? Какие регионы и сезоны наиболее подходят для знакомства с этой страной?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Здесь, на севере полуострова есть семь горных массивов, которые по красоте являются гордостью корейцев. Назову пять из них. Главной - это, конечно, Кымгансан - Алмазные горы. Но этот туристический объект корейскими друзьями пока только приводится в порядок после многолетнего запустения, которое случилось по вине власте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Южной Кореи)



Посол РФ в КНДР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 Предоставлено посольством

- с ними в свое время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о совместн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этих мест, но они по политическим мотивам ее нарушили.

На второе место я бы поставил Мёхянсан - мы называем этот горный массив "Ароматными горами" - весной там море благоухающих лесных цветов. Туристы, прибывающие в КНДР через Пхеньян, должны обязательно там побывать, насладиться водопадами с хрустальной по чистоте и прозрачности водой и посмотреть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й музе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дружбы - там хранятся подарки, преподнесенные руководителям КНДР от имени И.В. Сталина, Мао Цзедуну и друг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личностей.

Середина осени - это время, когда надо ехать в Кувольсан - ("Сентябрьские горы") - там самые потрясающие виды в сезон "Любования красным кленовым листом" ("Танпхунчоль").

В августе-сентябре я бы рекомендовал посетить Чхильбосан ("Горы семи сокровищ") - в отличие от других гор, сложенных из гранитных пород, Чхильбо - известняковый массив. Там скалы имеют совершенно невообразимые по причудливости очертания из-за процесса выветривания. А еще там растет чудодейственный по своим антигистаминным качествам гриб "соньи-посот".

Зима - это уже упомянутый мной Масикрён и, конечно, город Самчжиён, расположенный у подножья величественного Пэктусана - горы, являющейся национальным символом Кореи.

В свое время внимание всего мира было приковано к переговорам Ким Чен Ына с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Как вы оцениваете вероятность возобновления подобного формата контактов с США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Если в Пхеньяне решат, что этот диалог следует возобновить, мы будем это только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Разговор в сложнейшей ситуации, которая складывается вокруг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любом случае лучше, чем полное отсутствие каких бы то ни было контактов. Однако следует помнить, во-первых, то, по какой причине возникла эта напряженность. А возникла она исключительно по вине Вашингтона и следующих в его фарватере сеульских властей с их политикой расширенного сдерживания, усугубленной ядерной компонентой. А во-вторых - учитывать крайне неудачный опыт предыдущей попытки договориться с Д. Трампом, когда руководитель КНДР сделал очень широкие односторонние искренние шаги навстречу оппоненту, не получив взамен практически ничего.

(Окончание на странице 6)

Ко дню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работника**Несмотря на санкции, русофобии в Южной Корее нет. Посол РФ в Сеуле оценил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 6)**

Корейский бизнес крайне неохотно покидает наш рынок, не желая полной сдачи своих позиций конкурентам. Надежды на возвращение присутствуют в сферах автомобилестроения и производства электронной продукции. При том, что список товаров экспортного контроля достигает уже 1437 наименований, корейские бренды стремятся занять те ниши, которые освобождаются Западом.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то товары народного потребления, косметика, текстильная и пищевая продукция. Сохранен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сфере рыболовства, Россия остается безальтернативным поставщиком нескольких важных видов морепродуктов на корейский рынок. Думаю, что, когда изменятся политически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бизнес сделает вс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верстать упущенное. Желаем ему в этом успеха.

Неоднократно заявлялось о проработке вопроса о возобновлении прямого авиасообщения между РФ и РК, которое было прекращено по инициативе Сеула в 2022 году. Вопрос возобновления прямого воздушного сообщения между РФ и РК сейчас на какой стадии?

Георгий Зиновьев: Отсутствие прямого авиасообщения создает трудности, прежде всего, простым людям, и это полностью вписывается в логику Запада о том, что русских надо наказывать, заставить их страдать, и тогда они пойдут менять свой режим. Подобная примитивная и глубоко ошибочная логическая цепочка привела, в том числе, к отмене прямого авиасообщения между нашими



Посол РФ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Георгий Зиновьев / Предоставлено посольством РФ в Сеуле

двумя соседними странами.

Кстати, многие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которые переехали сюда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с Сахалина и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теперь не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и посетить сво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Честно сказать, большой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и в решении этого вопроса мы со стороны корейских партнеров не наблюдаем.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 Сеуле и других городах Ко-

реи часто можно видеть российских туристов.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не пострадало?

Георгий Зиновьев: Отрадно,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вусторонним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м соглашением продолжает оставаться страной безвизового въезда для наших граждан. Дан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были заморожены во время пандемии, теперь они восстановлены. Многие российские туристы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риезжают сюда. У них есть определенные сложности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нет возможности осуществлять в нормальном режиме расчеты, опять же, нет прямого авиасообщения. Тем не менее, Корея продолжает пользоваться в России большим интересом, остается популярн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дестинацией. В 2023 году наблюдался заметный рост количества приезжающих сюда наших туристов - свыше 80 тыс. человек. Увеличились эти цифры 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 до более чем 112 тыс. человек. Уверен,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людские обмены имеют хорошие шансы на дальнейшее расширение.

Кстати, это касается и всего гуманита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в текущих условиях нам не следует дожидаться изменений в политической сфере, а продолжать активную работу на гуманитарном треке. Тем более, что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ысок интерес к России и нашей культуре, здесь действует немало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которые активно и плодотворно работают на ниве культур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Ко дню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работника**Россиян встречают с улыбками. Посол РФ в КНДР рассказал, как живет Северная Корея****(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странице 5)**

Здесь, напомню, взорвали свой ядерный полигон, в порядке жеста доброй воли вернули останки американских солдат, погибших в ходе войны 1950-53 гг., объявили мораторий на ракетные запуски и ядерные испытания и несколько лет твердо следовали ему ("атомная" часть моратория сохраняется до сих пор).

Помнится, американцы со свойственным им высокомерием говорили, что адекватным ответным шагом был факт самой встречи Трампа с Ким Чен Ыном - дескать, президент США "соизволил" прилететь в Сингапур, а потом в Ханой. С таким надменным подходом новая/стар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Белого дома не добьется ничего - с руководителем КНДР разговор "сверху вниз" не получится, язык ультиматумов и угроз не пройдет. И, потом, ситуация сегодн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8 годом изменилась кардинальн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я КНДР как главная задача, которую ставят перед собой американцы, полностью утратила свою актуальность. Им придется полностью перенастроить свое целеуказан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ей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пережили непростые этапы. Какова нынешняя динамика межкорей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Насколько мне известно, в Конституции КНДР уже зафиксированы основные пункты провозглашенного в декабре 2023 г. на 9-м Пленуме ЦК ТПК Восьмого созыва курса на отказ от политики объединения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которая обозначена как основной противник. Такое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не на пустом месте - полагаю, здесь окончательно убедились в том, что в Сеуле объединение понимают исключительно как поглощение Севера Югом, сопровождающееся ликвидацией существующего в КНДР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троя. В Конституции РК ее суверенитет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всю территорию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значит, на территорию северного соседа, которого не признают и определяют "мятежным

образованием". Всех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в Сеуле считают гражданами РК. Южане никогда не прекращали подрыв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провоцирование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ческой 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й нестабильности в КНДР. А с воцарением в Голубом доме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градус враждебност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Пхеньяну и вовсе подскочил до небес. О каком объединении в такой ситуации может идти речь? Более того, о каких нормальных отношениях со страной, которая хочет тебя уничтожить и поглотить, можно говорить?

Оправданность такого курса лидера КНДР была убедительно подтверждена прошлой осенью. Тогда ругательные в адрес строя и руководства КНДР, прокламации с провокационными призывами посыпались на головы граждан республики уже не с воздушных шаров, которые запускали сидящие "на подсосе" у спецслужб т. н. правозащит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а с БПЛА, управляемых операторам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армии (один из этих дронов, к слову, летал даже над нашим посольством).

Изменение ситуации чисто гипотетически я могу себе представить только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в Сеуле будут внесен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изменения в Конституцию, а власти начнут проводи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ую суверенную политику, не оглядываясь на Вашингтон, где спят и видят, как бы стереть с карты мира КНДР - государство, которое хочет строить свою жизнь по собственным, а не американским правилам.

Вы работали и в Южной, 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Ожидаете ли, что ваш любимый город на полуострове - Пусан, но в целом ближе вам именно КНДР. Представим, что у вас есть 10 дней на поездку по всей Корее без ограничений. Как бы вы организовали свое путешествие?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Д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усан, где я служил в нашем генеральном консульстве два года в 2001-

2003 гг., произвел на меня неизгладимое впечатление. Это потрясающий, не похожий на други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города морской мегаполис, населенный удивительными по своему гостеприимству людьми. Но КНДР, где я живу и работаю вот уже 30 лет, в том числе 10 лет в качестве чрезвычайного и полномочного посла России, стала для меня, можно сказать, второй родиной.

Если бы случилось чудо, и у меня появилось 10 таких, как вы сказали, дней, я бы поделил их пополам. Одну половину потратил бы на путешествие по Югу с обязательным посещением, конечно, Пусана и острова Чечжудо, где я ни разу не был. Что же касается КНДР, то здесь, кажется, уже не осталось мест, которые я еще не посещал. Поэтому на всю вторую половину воображаемого отпуска поселился бы в принадлежащем МИД КНДР охотничьем домике в уезде Ёнтхан провинции Северная Пхёнан на берегу одноименного озера, и все эти дни бродил бы с ружьем по полям и сопкам в поисках фазанов, наслаждаясь девств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природой и вдыхая чистейший благоуханный воздух сосновых лесов.

Недавно в странах Азии отметили Лунный Новый год. Что бы вы хотели пожелать народам России и Кореи в наступившем году? Какие надежды и ожидания вы связываете с этим годом в контексте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Всем россиянам, всем корейцам в этот год Зеленой Деревянной Змеи я могу пожелать только мира и благоденствия. В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двумя нашими дружественными странами - Россией и КНДР - я ожидаю новых больших событий, которые закрепят двустороннее всеобъемлюще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артнерство в практическом плане, дадут старт крупным программа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принесут нашим народам реальную, осязаемую пользу.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Лукашенко встретился с самой богатой женщиной России Татьяной Ким

17 февраля 2025 года Президент Беларуси Александр Лукашенко провел встречу с известной российско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ницей, основательницей маркетплейса Wildberries Татьяной Ким.

Совещание проводилось по вопросам развития частного бизнеса в Беларуси, перед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Президента Беларуси. Лукашенко затронул тему о магазинах шаговой доступности и отметил, что Wildberries в Беларуси должен работать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ство.

После совещания Татьяна Ким подвела его итоги в своем Telegram-канале. Она отметила, что компания старается не просто масштабировать свой бизнес, а создать целую экосистему.

Отношения с белорусскими властями у самой богатой женщины России отличные. Летом 2024 года Татьяна Ким приезжала с детьми в отпуск, а для январских



выборов Президента Беларуси Wildberries выпустил пакеты с призывом идти на выборы.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9 февраля 2025 года Bloomberg оценивает состояние Татьяны Ким в 9,3 млрд \$.

<https://t.me/saramkor>

На кинофестивале в Берлине покажут 7 фильмов РК

На 75-м Берлинс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который открылся 13 февраля, представлены семь работ южнокорейских режиссеров. За главный приз - «Золотого Медведя» - поборется фильм режиссера Хон Сан Су «Что говорит тебе эта природа». Два фильма будут показаны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Berlinale Special. Это фильм режиссера Пон Чжун Хо «Микки 17», который снят по мотивам романа американского писателя Эдварда Эштона «Микки 7». Будет также показан новый фильм режиссера Мин Гю Дона «Старуха с ножом». В его основе одноименный роман автора Ку Бён Мо. В секции «Форум», которая представляет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ые и новаторские фильмы, будут показаны четыр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артины. Это независимый фильм «Весенняя ночь» режиссера Кан Ми Чжа,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Чувство насилия» режиссера Ким Му Ёна, «Чхангён» режиссера Ли Чжан Ука и «Фотосинтетическая смерть» режиссера Чха Чжэ Мина.

(KBS World)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

일본은 사할린한인을 버렸다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토 황제는 라디오로 일본의 패전을 공포했다. 사할린의 한인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던 사할린 땅에 평화와 희망을 가져다준 소비에트 군인들을 기쁘게 맞이했다.

이들은 러시아 군인들의 손에서 검은 빵 한 덩어리를 기쁘게 받으며 '해방의 빵'이라고 불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이들은 곧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뼈저린 실망이었다.

1945년 8월 25일 소비에트군은 가라후토의 항구를 봉쇄하고 남사할린의 주요 도시인 도요하라를 해방시켰지만 그곳에 모여 있던 피난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8월 24일 러시아 상륙 부대가 오도마리에 상륙했다. 그날 이 항구의 선창의 풍경은 모든 목격자들의 기억에 영원히 남았을 것이다. 2만 명 이상의 일본 피난민들이 항구를 가득 채워 살아있는 인간의 바다로 만들었다. 모든 학교들과 사원들, 공공건물들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로 가득했다.

군중들이 있는 해안가에는 섬을 떠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부조차 태울 수 없는 증기선, 항만용 소형 증기선, 어선들이 달려들고 있었다. 약 3만여 명의 전 일본 제국 국민들이 사할린에 남아야 했다.

참모부는 피난민들이 예전의 거주지로 귀환하여 예전과 같은 기업과 기관의 일터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일본인들은 순순히 이를 따랐지만 한국인들은 귀국을 요구하면서 저항했다. 군사 행동 중 일부 주민들이 북쪽 지역에서 남쪽 지역으로 도주했다.

부분적으로 오도마리산과 도요하라 산에 약 3만 명 이상의 피난민들이 모여들었고 이들 중 일부는 산속으로 올라갔다. 피난민은 모두 6만 4천 명으로 추산된다.

박승의 가족의 피난 길: 避難しましょう! (피난 가자)

니토이 촌에는 전투가 없었다. 단지 소련 비행기가 폭탄을 쏘는 광장에 투하했다. 두 식구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지하실에 숨어서 소련군을 기다렸다. 사이렌 소리가 그치면 호기심이 많은 우리들은 지하실 문을 열고 거리를 살펴봤다. 광장의 집들이 파괴되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우리 식구는 부랴 부랴 집을 챙겨서 피난을 떠났다. 피난 길을 떠나게 되면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된다. 특히 아이들이. 어린 나이의 누나와 나는 배낭을 메고 부모, 친구들과 걸어가는 것이 흥미로웠다.

일본 관청이 준 화물차를 타고 고노마이(현 노위알렉산드

일본은 사할린 한인을 버렸다



롭가)를 도착했을 무렵 귀환선 2척은 이미 오도마리(현 코르사코브)항을 떠났다. 우리 차례를 3주나 기다렸으나 선박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 배들은 소련 해군의 폭격에 침몰했다. 우리가 불안한 기대와 혼란 상태에 잠겨 있는 사이에 소련군은 북위 50도의 국경 지대에서 남으로 진격했다. 이렇게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다. 전쟁이 끝나고 우리들은 소련 당국의 지시에 따라 2주일 후에 니토이로 돌아왔다. 다행히도 우리가 살던 집들은 파괴되지 않았다.

해방된 남사할린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2만 3498명이었고 대부분이 일본인들에 의해 젊은 나이에 가족, 친지들과 헤어진 사람들이었다. 소비에트 권력은 이를 동정했지만 전쟁으로 파괴된 농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다.

1946년 2월 2일 소련의 사할린 인민위원회는 한국인을 포함한 전 일본 국민에게 임시 신분증과 거주증을 1946년 4월 1일부터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역류되어 있던 사할린 모든 주민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권력의 정책이었다.

하지만 한인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원했다. 이들은 예전의 억압자인 일본인들보다 더 먼저 고국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규모 정책'은 이들의 기대를 가혹하게 기만했다.

1946~49년 소련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간 협력 과정에서 약 2만 6065명의 북한 사람들이 (주로 어업을 위해) 사할린으로 동원되었다. 당시 약 1만 4395명은 고국으로 돌아갔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남게 된 북한 노동자들은 사할린 주의 주민들로 합류했다.

일본인들의 본국 송환으로 생긴 남사할린의 노동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 소비에트 정부는 전국에 조직적 동원을 선포했다. 1946~1949년 대륙으로부터 45만 명의 이주민들이 왔다. 이들 중에는 1937년에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던 한인들도 있었다.

해방된 남부 사할린에 있는 한인들이 러시아어를 모르는 문맹자였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통역원, 교사, 한인 주민 노동부서 감독관들로 일해오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해방된 최초 시기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의 계속된 충원이 이루어졌다.

사할린에 버려진 1세대의 한인들은 한국으로 돌아갈 희망을 잃고 타지에서 살아야 했다. 이들은 러시아어를 모르고 서양 문화에 적응하지도 못하면서 적지 않은 시련을 겪었다. 이들에게는 모든 민족과 인민들에게 평등의 원칙을 공포한 나라에서 국적 없이 오랜 기간을 살아야 하는 가혹한 운명이 주어졌다.

1950년대 한인들이 새로운 조건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문제는 적지 않았다. 전후 초기 시기의 특징인 다수의 무직자들과 극도로 악화된 식료품 상황으로 특히 쌀과 대두를 중심으로 한 식량부족이 심각한 위기로 다가왔다.

농업이나 어업, 산업 조합에 편입될 때 제한이 있었고 도시의 주민들이 촌락으로 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존속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 조직들의 대표들에게는 한인들에게 주택과 농업용 건물을 짓고 수리할 때 지급하는 금전 대부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다.

국적 없이 살고 있는 젊은 한인들은 대부분의 고등 교육 기관과 중등 특수 교육 기관에 입학할 수 없었다. 일본의 가라후토에 강제로 빼앗긴 성과 이름을 찾게 하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1951년 8월 18일 수지에 따르면 사할린주에는 한인 4만 2916명이 살고 있었고 그중 남자는 2만 2427명, 여자는 1만 777명, 16세 이하 아동은 9712명이었다. 이미 1950년대 초에 한인들 다수가 소련 국적 취득 신청을 했다. 접수는 사할린주 행정기관들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1952년 5월 6일 소련 내각회의 결정에 준하여 진행됐다.

예외 규정으로 소련 국적자의 소개소가 없을 경우 지역의 한인 주민 (무국적자)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 온 자의 청원서를 검토할 허가를 줬다. 하지만 직장의 평가서와 사할린 지역 공산당 집행 위원회의 상응하는 평가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었다.

정부의 조건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통계가 나왔다: 1008명이 소련 국적 취득 희망을 밝혔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이후 고국으로 돌아갈 때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련 국적 취득을 기피했다. 6346명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적자로 1만 5909 명은 무국적자 (전 일본 국적)로 남았다.

[글 = 박승의 전 사할린 국립대 교수 (출처: 경기신문, 2024.12.16)]

KOTRA, 글로벌 해외인재 유치 나서

17일 '해외인재유치센터' 개소 K-Tech Pass 발급 업무 개시

KOTRA(사장 강경성)가 2월17일 첨단산업 국내기업의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종합 지원하는 '해외인재유치센터'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25년 1월 17일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관이다.

이에 따라 센터는 인재 유치와 관련된 홍보, 안내, 조사, 연구와 민원사무 처리 등 지원업무를 비롯, 해외 채용행사, 인재유치사절단 등 사업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정부가 올해 새로이 시행하는 우수 해외인재 확인서 '케이테크 패스(K-Tech Pass)' 발급 업무와 패스 발급자의 정착을 지원하는 컨시어지 서비스도 전담하게 된다.

KOTRA는 이날 개소식에 이어 산업부, 기재부,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국립국제교육원,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이·바이오 분야 협회 대표 및 기업이 참여하는 'K-Tech Pass 지원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센터의 해외인재 유치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KOTRA의 우수 인재 매칭부터 유치까지 돕는 원스톱 서비스가 해외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해외인재 에드윈 후라도(멕시코 국적, 현대차 AAM연구원)씨도 "정보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한국 취업 결정은 큰 도전이었다"며 "센터의 홍보 및 유치 활동이 더 많은 우수 해외인재를 한국으로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

코트라 센터 개소 첫해 사업으로 미국(뉴욕, 실리콘밸리),

영국(런던), 싱가포르 4개 지역에서 인재유치 세미나, 현지 채용박람회·학회 연계 홍보로드쇼 등이 예정되어 있다. 더불어, 국내 외국인 유학생과 채용 기업을 연결하는 취업박람회 "글로벌 탤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 외국인유학생 채용관"도 5월 19~20일 양일간 COEX에서 개최한다.

강경성 KOTRA 사장은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인재 유치는 우리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KOTRA는 센터 개소를 계기로 해외인재의 발굴과 채용, 정착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해외무역관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인재들에게 한국 근무의 매력과 장점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Напомним, раздельно собранные отходы необходимо помещать в ближайший синий сетчатый контейнер. Мусоровозы забирают его содержимое отдельным рейсом не реже одного раза в неделю в районах и 2-3 раза в неделю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осле чего отходы отправляются на сортировку. По мере накопления вторсырье направляется в Хабаровск, Уссурийск, Владивосток и Новосибирск на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е заводы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новых продуктов.

유즈노사할린스크, <사할린에서 아방가르드 날들> 축제 개최

2025년 2월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카지미르 말레위츠 화가의 탄생일을 맞아 전위예술을 주제로 하는 행사가 시작되었다. 사할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는 '로스트'아트공간에서 강연과 활동교실을 비롯해 기타 활동을 진행한다.

2월 14일(금)에는 <사할린에서 아방가르드 날들> 축제 개막식과 섬지역 화가들의 아방가르드 방면의 해석 및 작품을 소개하는 <사각형 속의 아방가르드(전위)> 전시회가 열렸다.

예카테리나 보차로와 미술사학자의 강연에서는 축제 참가들에게 말레위츠의 유명 작품인 <검정 사각형>의 비밀을 알려주고, 미술시장에서 왜 모조품이 많은지를 설명해주었다. 축제 프로그램 일환으로 아방가르드 회화와 설치미술에 대한 강연도 진행된다.

사할린의 화가들은 창작적 만남을 개최하고, 원시주의와, 추상화, 콜라주 등 기법을 이용한 활동교실을 연다. 축제 참석자들은 예카테리나 플로린스카야 미술가와 함께 카지미르 말레위츠의 초상화를 만들 수도 있다. 3월 7일에는 창작축제와 더불어 세르게이 소스나가 문학축제를 진행한다.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역사에 대한 비공개 영화관람으로 사할린 주민들은 보여진 것과 알게된 것을 전문가들과 토론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새로운 예술철학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축제 폐막은 3월 14일 레닌 거리에 있는 '로스트'아트공간에서 진행된다.

Фестиваль «Дни авангарда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ходи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ное авангар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и приуроченное ко дню рождения художника Казимира Малевича, пройд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14 февраля по 14 марта 2025 год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арт-пространства «РОСТ» для островитян проведут лекции, мастер-классы и другие активности.

В пятницу, 14 февраля,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ие фестиваля «Дни авангарда на Сахалине» и выставки «Авангард в квадрате», на которой представили произведения и интерпретации островных художников эт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На лекциях искусствоведа Екатерины Бочаровой гостям фестиваля открыли тайны знаменитого «Черного квадрата» Малевича и рассказали, почему на рынке искусства много подделок. В программе фестиваля также лекции об авангарде в живописи и об инсталляционном искусстве.

Сахалинские художники проведут творческие встречи и тематические мастер-классы в следующих техниках: примитивизм, абстракция, коллаж. Гости фестиваля смогут также создать портрет Казимира Малевича вместе с Екатериной Флоринской. Помимо творческих вечеров, пройдет и литературный — его 7 марта проведет Сергей Сосна.

На закрытых показах кино об истории русского авангарда сахалинцы смогут обсудить увиденное и услышанное с экспертами, разобраться в спорной философии Нового Искусства.

Торжественное закрытие фестиваля пройдет 14 марта, также в арт-пространстве «РОСТ» на улице Ленина.

노글리키 지역, 100대 이상의 차량 얼음 위 눈에 갇혀

사할린 북부에 갑작스런 악천후가 낚시꾼들에게 닥쳐 2월 15일 100대 이상의 차량들이 니이스키만 얼음 위에서 나오지 못해 화물차량들이 구조에 나섰다.

이 상황의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점심 때쯤 악천후가 해안을 강타하여 가시거리가 급격하게 나빠졌고,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고, 니이스키만을 통해 도로로 가는 길이 눈더미로 둘러싸였으며, 눈더미는 말 그대로 눈앞에서 커져만 갔다. 몇몇 오프로드차량의 낚시꾼들은 구역을 빠져나갔지만 다른 차량들은 꼼짝없이 눈더미에 갇혀버렸다.

'즈나마 트루다'지 텔레그램채널의 정보에 따르면 이러한 정체현상은 2km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이에 노글리키 지역 시장인 세르게이 구리아노브가 직접 지휘한 가운데 악천후에 갇힌 낚시인들의 구조를 위해 신속하게 특수차량들을 동원했다.

Свыше 100 автомобилей попали в снежный плен на льду в Ногликском районе

Непогода застала врасплох рыбаков на севере Сахалина. Свыше 100 автомобилей не смогли выехать со льда залива Ныйского 15 февраля. На помощь пришли погрузчики.

Как рассказал свидетель ситуации, стихия накрыла побережье ближе к обеду - видимость резко ухудшилась, поднялась позёмка, путь к дороге через залив перегородили сугробы, которые росли буквально на глазах. Некоторые рыбаки на внедорожниках успели проскочить участок, другие оказались в ловушке.

По данным Telegram-канала "Знамя труда", пробка растянулась на два километра.

Спасением рыбаков, попавших в непогоду, лично руководил мэр Ногликского района Сергей Гурьянов. Он оперативно мобилизовал спецтехнику.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Березка 2
ул. Украинская
Лужники М²
Эконом
пр-т Мира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옥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